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김 정 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어른도 함께 보는 동화

독도와 어린 인어(3)

(전회에서 계속)

고래들은 왜인의 배 앞을 두겹, 세겹으로 마치 담을 쌓았듯 막고 있었습니다. 왜인의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속이라서 왜인들은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들은 모두 의아해서 배 아래를 내려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젓는 왜인도 노가 잘 저어지지 않는데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의 배는 젊은 어부의 고깃배와는 다르게 배가 크고 좌우로 여럿이서 노젓는 사람이 있고 또 돛대도 앞뒤쪽으로 두개가 있어서 달린 돛이 바람을 많이 받아 앞으로 잘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인의 배는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진 채 모두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들은 바다속에 잠긴 노를 움직이지 못하게 물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랫!」

그 배의 왜인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노를 저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왜인의 배는 오히려 한옆으로 기울듯 해 가며 몹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래들은 왜인의 배 앞을 막고 있는 한편에 배 한옆에서 배 밑창을 여러마리가 주둥이로 밀어대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머리로 배 밑창을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행동은 왜인의 배가 한옆으로 기울어지게 하려는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인의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래는 힘이 셉니다. 그것도 여러마리가 떼지어 함께 행동한다면 아무리 큰 배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의 배로 몰려 간 고래들은 수십마리였습니다. 이러한데서 지금 왜인의 배는 마치 큰 풍랑을 만난 듯 배가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들은 배가 점차 한옆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서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한편 섬에 닿은 다른 왜인의 배 두척에서는 뒤늦게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 배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척에서는 왜인들이 섬에 상륙을 멈추고 배를 몰아 위험에 빠지는 배로 급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어부는 왜인의 배가 또 한 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노를 잡으며 달아날 태세를 하였습니다.

이때 엄마고래가 젊은 어부의 배 곁으로 다가와서 머리를 내밀고서 말했습니다.

「왜 안가고 있어? 달아나지 않는거야? 우리가 저러구 있는 동안에 멀찍감치 달아 났어야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역시 무슨 소린지 고래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고래의 말에 젊은 어부를 돌아보며 새삼 달아나자는 식의 흉내를 보였습니다.

젊은 어부는 아이의 행동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있어, 너네가 안 보이면 우리가 곧 뒤따라 갈께!」

엄마고래가 아이에게 또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외딴 섬에 가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부는 외딴 섬에서 왔던 방향과는 다르게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방향은 울릉도의 다른 근처 바다쪽이었습니다.

지금 왜인의 배가 닿아있는 쪽과는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등 했습니다. 왜 다른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눈치였습니다.

젊은 어부가 울릉도 섬을 떠나지 않고 왜인들이 모르는 섬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놈들이 섬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려 하는데 있었습니다. 언젠가 수군대장이 말한대로 산에 올라가 봉홧불을 올리고자 하여서 였습니다.

고래엄마도 젊은 어부의 고깃배가 왔던대로 안 가고 엉뚱한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지켜보다가 배가 울릉도 섬의 어느 한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느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한 듯 다시 왜인의 배 쪽으로 잠복해 갔습니다.

엄마고래가 왜인의 배로 다시 왔을 때 그 왜인의 배는 거의 한 옆으로 기울어지듯 해 있었고 배 위에서는 왜인들이 아우성치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러는 바다에 빠지는 왜인도 있었습니다.

엄마고래는 뭐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왜인의 배를 공격하고 있던 고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바다위로 치솟았습니다. 그 모습들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고래들이 치솟는 데서 주변 바닷물도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왜인들은 고래들 모습을 보는데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습니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것입니다.

「뭐 햇? 쏴라, 쏴앗!」

왜인의 대장이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 있다가 뒤늦게 소리질렀습니다. 고래들한테 총을 쏘라는 고함이었습니다.

왜인들은 다시 바다속에 잠긴 고래들을 향해 조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바다속을 향해 쏴대는 것이었습니다.

고래들은 그렇게 한번 바다위로 솟은 후 다시는 솟지 않았습니다. 순간 어데론가 사라지고 출렁대는 파도는 잠잠해지

기만 하였습니다.

왜인의 배는 고래가 사라진 후 기울어져 있던 것이 바로 잡혀졌습니다.

그들 왜인들은 그간 있은 일이 고래떼 때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가 온 다른 배의 왜인들에게 고래떼 습격으로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왜인들이 고래떼를 발견하고서는 비록 무턱대고 고래들이 보이는 바다로 향해 조총들을 쏴댔지만 총알은 고래들에게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못하였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고래들이라서 총알이 바닷물을 뚫고 들어 가는데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총알에 맞아도 고래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인들의 배 밑에서 공격하던 고래들은 엄마고래를 따라 간 것입니다.

엄마고래는 사실 고래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 고래들의 대장이었고 아이를 키운 엄마고래였던 것입니다. 아이만 키운게 아니라 스스로가 낳은 새끼고래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고래들의 아빠가 되는 고래들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고래들은 사람들의 아빠처럼 대장 노릇은 못하였습니다. 언제나 엄마고래가 무리의 대장이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왜인들이 안 보이는 섬 가에 배를 댔습니다.

이때 고래엄마도 젊은 어부의 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젊은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데가?」

젊은 어부는 아이가 묻는말을 역시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래들끼리 하는 말을 아이가 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부는 손짓으로 섬에 올라갔다가 돌아오겠다는 흉내를 보이며 배에서 기다리라 하는 흉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도 역시 짐작으로 젊은 어부의 손짓을 이해하였습니다.

젊은 어부는 섬에 오르기 전에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하늘은 해가 서산 넘어 기울고 있는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허릿춤에 차고 있는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항시 갖고 다니는 부싯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싯돌은 돌끼리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돌을 말합니다. 옛날에 성냥이 없을 때 사용하던 불 피우는 재료였습니다.

젊은 어부가 새삼스럽게 부싯돌을 들여다 본 것은 산에 올라가 불을 피우는데 필요한 것이어서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짐짓 들여다 본 것이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섬에 올라 줄곧 산자락 쪽으로 달려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가파른 산 길을 찾아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돌릴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빠르게 올라 갔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봉홧불을 올려야 그 연기가 멀리 멀리까지 알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둑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울릉도 섬에는 무서운 산짐승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뱀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산나물을 뜯다가 밤늦게 까지 산속에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어부도 섬에 오기전부터 그런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둑해진 숲속을 맘놓고 헤치며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막상 산꼭대기에 오르고 보니 마침 달이 뜬 밤이라서 주변이 훤하였습니다. 마른풀과 나뭇잎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들도 모았습니다.

젊은 어부는 부싯돌로 불을 피웠습니다. 마른 풀잎에 불이 붙자 마른 나뭇가지들을 잔뜩 불꽃이 피여 오르는 데다 올려 놓았습니다.

불은 나뭇가지에 잘 옮겨 붙어 활활 탔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많이 나게끔 불이 쉽게 붙지않는 굵은 나무를 활활타는 불꽃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굵은 나무를 태우려는 불꽃은 쉽게 붙지 않고 대신에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연기는 구름처럼 산꼭대기를 덮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어부는 밤에는 연기보다 불꽃이 더 피여 오르는 게 멀리서 쉽게 보지 않을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젊은 어부는 밤을 새우더라도 계속 불꽃을 살려 놓기로 하였습니다. 밤이라서 우리 수군들이 봉홧불을 보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젊은 어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한 데서 결국 밤새껏 산봉우리에 불을 피우고 지냈습니다. 다음날 해가 돋은 아침 나절에야 산꼭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이는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 주위에는 고래들도 계속 바다속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엄마고래는 이따금 바다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배 위의 아이를 살펴보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배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배로 돌아와서는 근처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이유는 아침 식사용으로 아이와 함께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배위에서 고기잡이 하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계속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기가 서너마리 잡혔습니다. 외딴 섬이면 금시 몇 마리를 잡았을 텐데 여기서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젊은 어부는 잡은 고기를 섬 위로 갖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마른나무 조각들을 주워모아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는 그 고기굽는 모습도 호기심있게 구경하였습니다.

젊은 어부는 세 마리를 다 구은 후에는 먼저 맛을 본 후에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구은 생선고기를 맛본 후 매우 맛있어 하였습니다. 두 마리는 아이가 먹고 젊은 어부는 한 마리만 먹는 것으로 아침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를 저어 어제 왜인의 배들을 봤던 바다로 배를 돌려 갔습니다.

젊은 어부의 배가 다시 왜인의 배들을 보는 울릉도 섬 근처의 바다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왜인의 배 두 척과 한 척의 우리나라 수군의 배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어부는 수군의 배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인의 배 두 척은 수군의 배 양측에서 접근하며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군의 배에서는 양측에서 다가오는 배를 오히려 피하면서 화살을 왜인의 배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총을 쏴대는 것과 화살을 퍼붓는 싸움으로 양 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살보다 조총에서 뿜어 나오는 총알이 더 빠르고 맞으면 다치는 확률이 높고 상처가 컸습니다. 더욱이 왜인의 배가 양측에서 공격하는 것이라서 수군측은 불리하고 위험에 빠지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심정을 아이가 느낀 듯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다로 뛰여 들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바다로 뛰여 든 것에 젊은 어부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래와 같은 아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바다속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안전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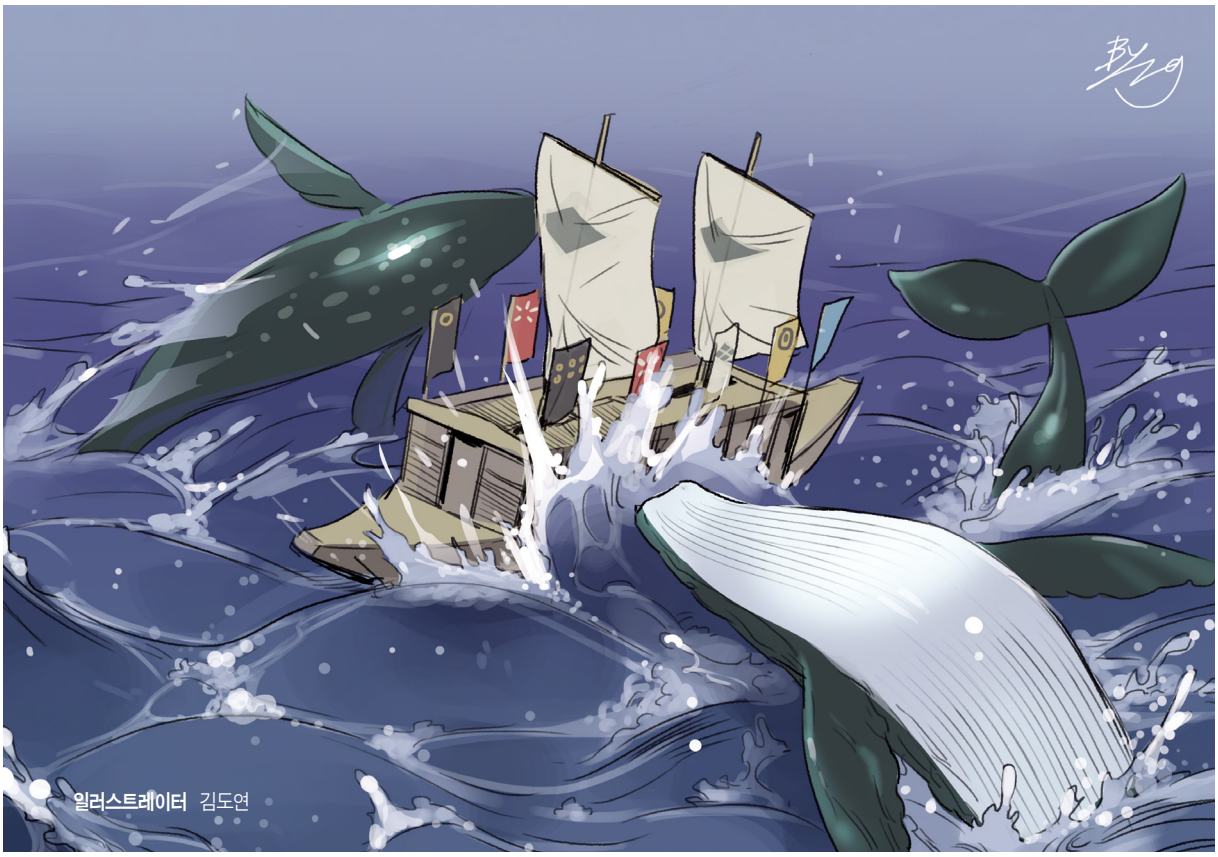
젊은 어부는 수군의 배 쪽으로 다가가려 했는데 더는 접근하지 못하겠다고 멀찍감치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군의 배는 왜인의 배에 포위되다 시피하여 갔습니다. 화살도 다 떨어져 가는 듯 아까와는 다르게 날라가는 화살이 적었습니다.

쏴대는 것에는 활이 빨랐습니다. 조총은 총알이 쏴지게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하여 좀 늦어지고 했습니다. 재빨리 쏴대지는 못하고 하는데 그 대신에 총알이 빠르고 맞히는 확률이 높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군의 배는 접근을 쉽게 하지 못하고 되레 피하는 모습만 보인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맞붙어서 창과 칼로 싸우면 전문 군인들이고 하여 불리할 것도 없었지만 떨어진 데서는 왜인들이 비록 전문 군인들은 아니라서 그들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수군대장은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지않고 일부러 피하면서 왜인의 배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왜인의 배 다른 한 척은 대나무를 잔뜩 실은 채 이미 울릉도 근처 바다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으로 온 수군은 오히려 싸움을 걸어 온 왜인들을 막는데도 쉽지않는 지경에서 대나무를 도벌해 가는 왜인의 배는 아예 잡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로 뛰여 든 아이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어부는 주변의 바다속을 들여다 보았으나 아이는 물론 고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어데로 갔지?)

날씨도 청명하고 바닷물도 잠잠하여 바다속은 깊은데까지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해 보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들만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젊은 어부가 싸우던 양 쪽 배쪽에서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조총소리가 나지 않는것과 함께 화살이 날라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왜인의 배 쪽에서 젊은 어부는 보았습니다. 왜인 배 두 척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나 배가 흔들리는 꼴과 같았습니다.

왜인의 배들은 이러한데 수군의 배는 조용한 바다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았습니다.

수군의 배에서는 왜인의 배가 몹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참 이상하다....〉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의 배에서는 〈왜 이랫?〉 〈뭐얏?〉하는 소리들을 지르며 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도 이상한 일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인의 배가 왜 갑자기 풍랑만난 배 꼴인가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왔었는지 뱃전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깃배 모서리를 잡고 오르려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뒤늦게 아이를 발견하고 끌어 올려 주었습니다. 올라 온 아이는 히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도 고래들과 통하는 말이기만 하여 젊은 어부는 몰랐습니다.

「걱정마. 엄마가 나쁜 사람들 혼내 주러갔어.」

그때였습니다.

왜인의 배에서 또 조총소리가 났습니다. 그 총소리는 바다로 향해 몇 명의 왜인들이 조총을 쏴대는 소리였습니다.

왜인들은 배 주위에 고래들이 떼지어 배에다 부딪히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고래들을 향해 총질을 한 것입니다.

이 총소리와 함께 고래들이 떼지어 바다위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바닷물도 엄청나게 파도가 되어 높이 솟았습니다. 왜인의 배는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래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무리

였습니다. 왜인들은 물론이지만 가까이에서 이 광경을 본 수군들도 심히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의 배 한 쪽은 고래떼의 공격이 덜한지 덜 흔들리는데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군의 배로 접근하던 뱃머리를 다른데로 돌려 떨어져 나가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고래떼는 아마 왜인의 배 한 척을 먼저 혼내 주려고 더 많이 몰려들어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군의 배는 그 왜인의 배로 바짝 다가와서 밧줄을 던져 왜인의 배를 끌어 당기고서는 맞닿자 왜인의 배 위로 수군들이 뛰여 들었습니다. 긴창과 칼을 들고 들어 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흔들리던 왜인의 배가 덜 흔들거리며 바로 떠있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왜인들은 조총과 칼을 놓고 손을 들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왜인은 수군들에 의해 밧줄에 묶였습니다.

한편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왜인들은 구조되어 그들 배에 실려 함께 묶여졌습니다. 달아난 왜인의 배는 고래들이 그대로 내버려 뒀는지 벌써 멀리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 배도 역시 총과 칼을 가진 왜인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왜인들은 이번에 울릉도에 온 것은 철저한 대비를 한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수군이 잡으러 오면 대항하려는 작정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젊은 어부의 배는 수군의 배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젊은 어부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의 배가 수군의 배에 접근했을 때 엄마 고래가 머리를 내밀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엄마고래 따라 다른 고래들도 머리를 바다위로 내밀고서는 뭐라고 〈우-우-〉 합창하 듯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고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 혼내줬다. 이제 좋은 사람한테 잡혀간다.」

아이는 엄마고래의 말을 받아서

「많이 많이 잡아가야 해!」

수군의 대장은 물론 수군들은 고래들이 바다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뭐라고 소리를 내는 광경이 웅장해서 잠시 넋 나간 듯 멍하니 내려다 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군의 대장이 젊은 어부의 배를 내려다 보며

「자넨 섬에 혼자 사는 그 젊은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수군 어르신!」

「그럼 봉홧불을 올려 알려준 것도 자네였구만 그래?」

「네!」

「어제 밤 늦게 고기잡이 하던 울진 어부들이 보고 사또한테 알려 그곳 관아에서 우리 영해도호부로 알려 줘 부랴부랴 달려온 우리네. 그런데 어찌된 셈인가 고래들이 우릴 도와주다니?」

「고래떼가 왜놈들 배를 공격해서 그래 된걸 아셨나봅니다. 사실 고래들이 그러했는데 실은....」

젊은 어부는 여기서 말끝을 우물쭈물 흐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

수군대장은 젊은 어부가 갑자기 말끝을 흐려 버리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며 물었습니다.

「저...실은」

젊은 어부는 곁에서 수군대장과 젊은 어부가 뭐라고 말을 주고 받는 것을 번갈아 양쪽을 쳐다보고 하는 아이를 새삼한 번 돌아보고 다시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군대장이 먼저 또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는 누군가? 아직 날씨도 차거운데 왜 발가벗고 있는가?」

「이 아이는 실은....」

젊은 어부는 계속 속시원하게 말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래와 함께 지내는 바다속 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닷속 아이라면 분명 사람의 아이인데 그러면 "인어"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이고 보면 어린인어라 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어부가 아이에 대해서 수군대장이 물었을 때 대답을 얼른 하지 못하고 주저해 하는 것을 보는 수군대장은 이상하게 여기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젊은 어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

다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어...실은...」

「실은 뭔가?」

「바다속에 빠진 아이를 구해 왔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오라 이 아이는 고래와 함께 사는 아이입니다.」

「고래와 함께 사는 아이라니?」

「이 아이가 들어서 고래들이 도와 준 것입니다요.」

「아이가 들어서 고래들이 우릴 도왔다구? 대체 무슨 말을 하는건가?」

수군대장은 도대체 젊은 어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눈빛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주위에서 듣고 있던 다른 수군들도 한결같이 의아해 하는 시선들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확실히 고래와 함께 바다에 사는 아이입니다! 사실입니다요.」

「뭐라구? 그럼 인어란 말인가? 바다속에 고래와 함께 사는 어린 인어란 말인가?」

「네! 틀림없습니다요.」

수군대장은 물론 주위 수군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저가 얼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혹시 아이에게 어떤 해라도 미칠까 싶어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사실인가?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구만. 분명 사람이 낳은 아이 같은데 어째서 고래와 함께 바다속에 산다는 것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외딴 섬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던 것뿐입니다.」

이날 젊은 어부는 수군대장과 아이와의 관계를 전후 사후 다 말해준 후 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인들이 들어와 부수고 난장판을 벌려놓고 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인양 그냥 지나치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어부는 그들 왜인이 모처럼 섬의 대나무를 베러 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근 산자락에 여기저기 대나무 가지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 어부는 계속 따라 붙기만 하는 아이를 집까지 데려와 구경시켰습니다. 아이는 비록 단촐한 집안 살림이지만 처음보는 이런저런 살림도구들에 호기심을 갖고 만져 보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어부는 이날 하룻밤을 이불속에 같이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분명히 사람의 아이인데 어쩌다 고래와 함께 바다에 살지만 언젠가는 사람으로 돌아와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늘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말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젊은 어부와 하룻밤을 지낸 아이는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래엄마를 만났습니다. 고래엄마는 고래들과 함께 근처 바다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고래를 만나 다시 바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엄마고래 등에 얹혀 어데론가 간 것입니다.

수군들은 울릉도 섬에 온 왜인들을 잡아 간 후 어린 인어가 들어서 고래떼를 동원한 후 왜인들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 울릉도 섬에 혼자 사는 젊은 어부가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서 어린 인어를 만났다는 이야기들도 하였습니다.

이런 소문들에서 울진 근처에 사는 어부들이나 멀리 영해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까지 소문을 듣고 외딴 섬으로 몰려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실제 그 어린 인어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괜한 헛 소문이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짐짓 외딴 섬까지 갔던 어부들은 막상 섬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비록 날씨가 좋았어도 아상하게 거센 파도를 만나 배가 뒤집혀질 지경 이었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심지어 젊은 어부에게 찾아와 사실 확인을 하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1년 쯤 지나지 소문은 다시 없어지는 것으로 잠잠하였습니다. 그동안 젊은 어부도 외딴 섬에 몇 번 갔으나

그날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로 한 번도 아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데로 사라졌을까?)

외딴 섬에 일부러 찾아가고 하여도 그때 그 바위에서는 물론 외딴 섬 어느 바닷가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데로 옮겨갔나? 그리고 영영 외딴 섬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나?)

젊은 어부는 이런저런 온갖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식같이 자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1년이 지났어도 영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쯤은 의젓하게 큰 아이가 되었을텐데....)

젊은 어부는 정말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인어에 대해서는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다시 외딴 섬에서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끝)

본 동화의 취지

울릉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여러 이름으로 전해졌다. 그중에 죽도(竹島)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바도 있었다. 이 죽도가 일본인들의 말로는 〈다께시마〉였다. 지금 그들 일본인은 독도를 두고 〈다께시마〉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은 과거 울릉도의 목재, 특히 대나무를 도벌하려 자주 왔었다. 그때 그들에게도 울릉도가 곧 〈다께시마〉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울릉도가 한때 범죄자의 소굴이 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사람이 사는 것을 금했다. 이럴 때 왜인들(일본)이 몰려와서 마구잡이 나무를 베가고 반달이나 머물다가 갔다는 우리 선대의 기록도 있었다.

독도는 일찍부터 울릉도 섬사람들의 한 어장(漁場)이었다. 이러한 데는 독도가 어느 지역보다 울릉도와 가까운데 있었다. 일본과는 울릉도보다 거리가 배 가까이 먼 것이다.

이런 역사와 지리적 문제를 가지고 독도는 분명 우리의 섬인 것을 주지시키는 내용과 함께 보다 더 독도에 관심을 갖게 판타지를 가미한 동화를 집필한 것이다. 역사적 내용을 함께 담은 것은 어른들도 동화 내용에서 우리의 독도를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저자)